

담배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초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의 비교를 중심으로

Consumer Perceptions of Conventional Tobacco and Heated Tobacco

안정용(Jungyong Ahn) · 김정원(Jungwon Kim) · 성용준(Yongjun Sung)

최근 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 시장에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담배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방식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나라별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의 담배제품 선택에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담배 시장의 변화, 담배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초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초담배 흡연자, 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 비흡연자 총 5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초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 간 연초담배의 유해성 인식에서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전자담배 흡연자가 유해성을 더 낮게 인식하였다. 흡연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경우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전자담배 흡연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의 경우, 전자담배 흡연자보다 연초담배 흡연자가 흡연 시 더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연초담배 흡연자,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완전 금연보다 점진적 금연정책을 선호하였으며, 연초담배 흡연자도 전자담배를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정책보다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및 담배 규제법안 발의에 참고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안했다는 정책적 함의와 연초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담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무적 함의가 있다.

주제어: 담배 소비, 쉐련형 전자담배, 연초담배, 금연정책, 담배규제

1. 서론

2019년 국내에서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8,036명으로 집계되었다. 직접 흡연과 연관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는 4조 6,192억 원, 의료이용 및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로는 7조 5,721억 원, 직간접비를 합친 총 사회적 비용은 12조 1,913억 원으로 2019년 한 해

에만 12조원 이상의 비용이 직접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였다(질병관리청, 2022). 담배는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소비되는 재화로, 담배 흡연의 문제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발생에 흡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흡연자 주변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 미친다. 흡연자가 담배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자신의 흡연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니코틴(nicotine)

때문이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의 의존성은 헤로인, 알코올, 카페인보다도 높다(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00). 니코틴 중독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은 흡연자는 담배 없이는 심리, 육체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힘들어서 이들에게 금연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러한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혹은 정책이 제안되지 않는 이상에는 일정 수준 이하로 국민 흡연율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고,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적 비용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담배에는 니코틴 외에도 타르,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최소 60여 개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질들이 각종 암 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Peeters et al., 2016). 하지만, 담배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의 경우 그 중독 및 의존성은 유해하나 니코틴이 암 발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그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지만, 발암물질은 아니기에 자신과 주변인의 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담배 안에는 니코틴 외에 60여 개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발암물질을 제외하고 니코틴만 제공하는 담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에 빠지면 이에 수반되는 발암물질을 계속 흡입하게 되고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약, 흡연자에게 발암물질은 제외하고 니코틴만 공급하여 심리, 육체적 불편감을 초래하는 니코틴 금단현상을 막는다면, 높은 니코틴 의존도로 인해 금연이 어려운 사람도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금연 보조 제품으로 몸에 부착해 체내로 니코틴을 공급하는 니코틴 패치가 있다. 하지만, 금연 보조제로서 니코틴 패치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니코틴 패치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만

(Fiore et al., 1992; Miller et al., 2005; Stead et al., 2004; Yoo et al., 1993), 니코틴 패치 부착 집단과 위약 패치 부착 집단 간 금연 지속 기간에 차이가 없거나, 그 기간이 7주 이내로 짧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Cooper et al., 2004; Hajek et al., 1999; Yingst et al., 2015).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데,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낮춰줄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켈런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라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였다. 켈런형 전자담배는 일부 국가에서는 '위해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MRTTP)'으로 분류된다. 위해저감 담배제품이란 '담배 관련 질병의 위해 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매 또는 유통되는 담배제품'을 의미한다(Institute of Medicine (US), 2012). 그러나 켈런형 전자담배의 위해저감 기능을 두고, 담배 제조업체와 특정 국가 간 소송전이 벌어질 정도로 켈런형 전자담배의 위해저감 능력에 대해 담배 생산 및 유통 업계, 정부는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인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흡연자에게 연초담배가 아닌 켈런형 전자담배 흡연을 권장하는 금연정책을 발의 및 시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켈런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초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켈런형 전자담배를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켈런형 전자담배의 위해감소 능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담배 제조업체 간 상반된 의견을 발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켈런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등장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담배 시장의 변화, 담배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연초담배 혹은 전자담배의 소비 동향(Guindon & Boisclair, 2003; Reid et al., 2014; Odani & Tabuchi, 2022),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Sanford et al., 2019; Rowell & Tarran, 2015; Winn, 2001; Vineis et al., 2004), 그리고 담배 정책의 효과성(이민진 등, 2014; 이철민, 2020; Cho, Dutra, & Glantz, 2018; Gilmore et al., 2013; Klein et al., 2020)에 집중되어 있을 뿐, 담배 및 흡연 행동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의 양, 그러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 흡연 시 흡연자가 느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소비자가 왜 건강에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안할 수 없다. 또한, 전자담배와 연초담배 간 소비자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자가 왜 전자담배를 선택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초담배 흡연자,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가 생각하는 연초담배,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규제 방식에 따른 담배 관련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및 담배 규제법안 발의에 참고될 수 있는 소비자 자료 조사 및 분석결과를 제안했다는 정책적 함의와 연초담배와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담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무적 함의를 제안한다.

II. 연구배경

2.1 연초담배 소비 동향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담배동향보고서(2022)에 의하면, 전 세계 15세 이상의 흡연율은 2000년 32.7%에서 2020년 22.3%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20.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187개국의 흡연율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 남성의 흡연율은 41.2%였지만, 2012년에는 31.1%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10.6%에서 6.2% 감소하였다(Ng et al., 2012). 흡연율 감소는 고무적이지만,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1980~2012년간 흡연 인구는 약 7억 2천만 명에서 약 9억 8천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북미, 오세아니아, 서유럽, 북유럽,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흡연율은 이 기간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의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여성의 흡연율은 그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증가한 국가들도 많았다(Ng et al., 2012).

국내의 경우, 1998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66.3%, 전체 성인 흡연율은 35.1%였지만,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2020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4%, 전체 성인 흡연율은 20.6%까지 떨어졌다(질병관리청, 2022). 하지만,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국내 흡연율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2015년 22.6%였던 전체 성인 흡연율은 2016년에는 23.9%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2.4%를 기록하였다. COVID-19 확산 이후인 2019년(21.5%), 2020년(20.6%)의 흡연율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국 담배 시

장 규모는 2019년 16조 9914억에서 2021년 17조 7802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유로모니터, 2021). 이러한 감소세는 COVID-19 유행에 따른 외출제한(e.g., 재택근무, 모임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외출제한이 해제된 2022년 하반기 이후를 기준으로 한 흡연율 조사에서는 흡연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인 여성 흡연율의 경우 1998년 6.5%, 2020년 6.6%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 흡연율이 줄지 않고 있는 것과 2015년 이후 전체 성인 흡연율 감소가 정체된 것으로 짐작할 때 흡연율 감소가 어느 한계점에 부딪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흡연을 감소에는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이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정부는 담배 규제 및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담배 규제정책으로는 담배 가격 인상이 있다. 가격 인상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특히, 성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경우,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경우 흡연 중단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첫 흡연 시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조경숙, 2013; Wakefield & Chaloupka, 2000; World Bank, 1999). 가격 인상은 단기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김원년, 서정하, 김양중, 2006; Han, 2019; Ranson et al., 2002),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5년 2,500원 이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했지만, 2015년 성인 흡연율이 22.6%였는데 반해 2016년에는 되레 23.9%로 올랐다. 또한, 가격 인상은 흡연자의 반발, 서민 경제의 부담, 불법 담배 유통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흡연을 감소에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정책이다(김보영,

윤동현, 김봉석, 2015; 이민진 등, 2014). 가격 인상 외에도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값 경고 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금연 구역 확대, 금연 캠페인 등이 담배 규제 및 금연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이민진 등, 2014).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쉽지 않은 담배의 특성과 담배 소비에 취약한 소비계층이 남아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하로 흡연율이 감소하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흡연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Ng et al., 2012)에서 연초담배의 유해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등장하였다.

2.2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란 담뱃잎을 불에 직접 태우지 않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담뱃잎을 가열시킨 후 이때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말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대표적으로 미국 Philip Morris International(PMI)의 'IQOS', 영국 British American Tobacco(BAT)의 'Glo', KT&G의 'lii' 등이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위해저감 담배제품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연초담배 대비 적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Philip Morris International, 2018; Simonavicius et al., 2019). 제조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련의 연구들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연초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Glo로 바꾼 후 360일이 지난 흡연자와 연초담배를 금연한 지 360일이 지난 사람을 비교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유해 노출 생체지표'와 '잠재적 위해 생체지표'가 금연한 사람만큼 양호해진 것으로

로 나타났다(Gale et al., 2022).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IQOS를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승인하고, IQOS의 판촉 활동을 허가하였다(FDA, 2020).

반면, 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에 비해 건강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담배회사가 아닌 독립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유해물질(e.g.,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연초담배보다는 적게 나타났지만, 담배회사의 연구결과(Simonavicius et al., 2019)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Auer et al., 2017). 또한, 미국 식약처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제시한 물질 중 일부는 연초담배보다 쉐련형 전자담배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고, 쉐련형 전자담배에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조홍준, 2020).

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각국 정부, 기업, 연구자 간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2022)의 보고서에 따르면, 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022년 약 37조 원 규모에서 2024년에 약 50조 원으로 연평균 16% 고성장이 예측된다. PMI의 IQOS 이용자 수는 2020년 1분기 1,400만 명에서 2021년 4분기 2,1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신한금융투자, 2022), BAT는 전자담배 판매에 힘입어 2021년에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Reuters, 2022). 국내 흡연율은 20% 초반까지 감소하였지만, 국내 담배 제조회사 KT&G는 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 덕분에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김보라, 2022).

2.3 담배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의 필요성

흡연을 감소 추세가 둔화하고, 쉐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담배 소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담배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해성에서 차이가 불확실하고, 가격 등 혜택이 없는 쉐련형 전자담배를 왜 선택하였는지 등 담배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실용적 측면과 아울러 소비자의 심리적 측면까지 살펴봐야만, 현재 담배 시장의 소비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담배 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연초담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이미 다수 있지만,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 두 가지 담배 유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 관점에서 담배 소비 현상을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소비자가 인식하는 연초담배와 전자담배 간 유해성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8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쉐련형 전자담배 분석결과’에 따르면, 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타르 배출 수준이 더 높고, 유해물질 및 잠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초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이 보고서는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홍보가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다를 수 있다.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전자담배 흡연자는 연초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변경 후 건강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다(황천덕 등, 2016). 해당 연구는 쉐련형 전자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지만, 연초담배에서 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흡연자가 체감하는 건강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정부의 견해와 달리 연초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 간 소비자가 인식하는 유해성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문제 1: 연초담배와 전자담배 간 소비자가 인식하는 유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다. 타인의 건강 미치는 악영향도 중요하지만, 흡연 시 발생하는 냄새나 궤초 같은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흡연자는 흡연행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Weinstein, 1998). 금연 캠페인은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흡연 시 타인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점을 강조해 흡연자가 자신의 흡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이 금연 캠페인에서 자주 사용된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은 흡연자의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다(박하연, 강정석, 2015; Evans et al., 2004). 연초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게 나고,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경우 사회적 이미지와 사회적 시선을 적게 느낄 수 있다. 황천덕 등(2016)이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연구에 의하면, 전자담배 흡연자는 흡연 시 냄새와 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가 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초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와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을 조사 및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연초담배와 전자담배 간 소비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이미지와 사회적 시선에 차이가 있는가?

담배 규제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담배 규제정책은 특히 흡연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이미지와 압박감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담배 소비에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Levy, Chaloupka, & Gitchell, 2004). 많은 국가에서 완전 금연을 목표로 담배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완전 금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흡연자는 왜 모두가 금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발심이 가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흡연자가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규제정책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유해성 정보에 대한 흡연자의 신뢰 정도를 조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담배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정도와 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다.

연구문제 3: 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담배 소비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연초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 간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궤련형 전자담배는 일부 국가에서는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받아 금연 보조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연초담배 흡연자를 궤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게 만들기 위해 친 궤련형 전자담배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 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연초담배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연초담배에 부여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전자담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순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

책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조사해 규제정책별로 비교분석한다.

연구문제 4: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III. 연구 방법

3.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연초담배와 궤련형 전자담배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각종 담배와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담배 소비자인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설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설문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었다. 1) 인구통계학 정보 단계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성별, 나이, 흡연유형, 흡연량을 조사하였다. 2) 비흡연자를 제외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의 본인의 건강에 미친 유해성에 대한 지각과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3)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4) 담배 소비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과 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5) 마지막 단계에서는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설문시간은 2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통계프로그램 JASP를 활용해 진행되었고,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빈도분석과 집단 비교(연초담배 vs. 궤련형 전자담배)가 수행되었다.

3.2 조사대상

조사대상 모집과 자료수집은 조사전문업체 마크로 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중 연초담배 흡연자,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흡연자의 경우 해당 담배 유형(연초담배 혹은 궤련형 전자담배)을 3개월 이상 흡연하고 있는 자를 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에 약 일주일 간 진행되었다. 총 60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대, 흡연 담배 유형은 가능한 균등하게 모집하였다. 연초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흡연자의 경우 흡연 담배 유형을 분류하는데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연초담배로 분류된 응답자의 경우 전자담배 흡연 개수가 하루평균 3개 이하인 응답자만 선정하였고, 반대로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경우 연초담배 흡연 개수가 하루평균 3개 이하인 사람만 선정하였다. 전체 600명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과 흡연 담배 유형이 불명확한 대상을 제외한 595명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초담배 흡연자의 하루평균 연초담배 흡연량은 11.47개($SD = 5.6$)였고,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하루평균 전자담배 흡연량은 10.00개($SD = 4.17$)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세부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3.3 설문문항 개발 및 측정

설문문항 개발에 앞서 연초담배 흡연자 5명,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5명, 비흡연자 5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흡연의 유해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 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수집하였고, 이 의견들을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

〈표 1〉 조사대상의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성	298(50.1%)
	여성	297(49.9%)
나이	20대	150(25.2%)
	30대	153(25.7%)
	40대	141(23.7%)
	50대	151(25.4%)
담배 유형	연초담배	220(37.0%)
	필러형 전자담배	220(37.0%)
	비흡연	155(26.1%)

는 데 활용되었다.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박하연, 강정석(2015)이 개발한 문항을 각색하여 사용하였다. 비흡연자가 아닌 실제 흡연자가 지각하는 연초담배 혹은 전자담배가 체력, 폐, 심장, 뇌, 기침 및 가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준을 리커트식 7점 척도(1: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로 측정하였다.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Evans et al.(2004)이 개발한 문항들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해 7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점(고독한, 자기중심적, 촌스러운, 무식, 매력적이지 않은, 쿨하지 않은, 데이트하고 싶지 않은)부터 7점(사교적, 사려 깊은, 세련, 지적, 매력적, 쿨, 데이트하고 싶은)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7점에 가까울수록 흡연을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사전 심층 인터뷰에서 수집한 흡연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1) 냄새(담배 냄새가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2) 건강(주변 사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3) 부정적 인식(흡연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압박감), 4) 관계형성(비

흡연자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느끼는 어려움), 5) 눈치(흡연 장소 내 흡연 시에도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 다섯 가지 문항을 7점 리커트식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담배 규제정책 관련한 문항은 1) 완전 금연과 점진적 금연정책에 관한 생각, 2)직접 규제(e.g., 벌금 단속)와 간접 규제(e.g., 가격인상)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7점 리커트식 문항(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부정적이다. 7: 매우 동의한다, 매우 긍정적이다)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을 통해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담배 소비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응답자에게 1) 담배(연초담배,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2) 담배 관련 정보가 진실됐다고 믿는지 3)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지 4) 정부의 공익광고 및 캠페인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 7점 리커트식 네 문항(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매우 동의한다)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초담배와 필러형 전자담배를 다르게 규제하는 차등 규제정책과 두 종류의 담배를 똑

같이 규제하는 동일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은 차등 규제 방식의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의 관련 기사를 제공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동일 규제 방식의 시행 중인 국가들의 관련 기사를 제공했다. 차등 규제의 기사 내용에는 익명의 국가에서는 궤련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정하고, 세금을 물리지 않아서 많은 흡연자가 연초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일 규제정책의 경우, 익명의 국가는 전자담배에도 연초담배와 같은 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연초담배와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사를 읽은 후, 응답자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정책을 신뢰한다, 믿을 수 있다), 태도(정책이 좋다,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정책 유용성(흡연을 감소에 도움이 된다,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책 수용성(정책에 찬성한다, 국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장기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에 관한 문항에 답하였다. 각 항목 별 문항 신뢰도는 우수하게 나타났다(신뢰도: Chronbach α .91; 태도: .95; 정책 유용성: .86; 정책 수용성: .96).

IV. 연구 결과

4.1 유해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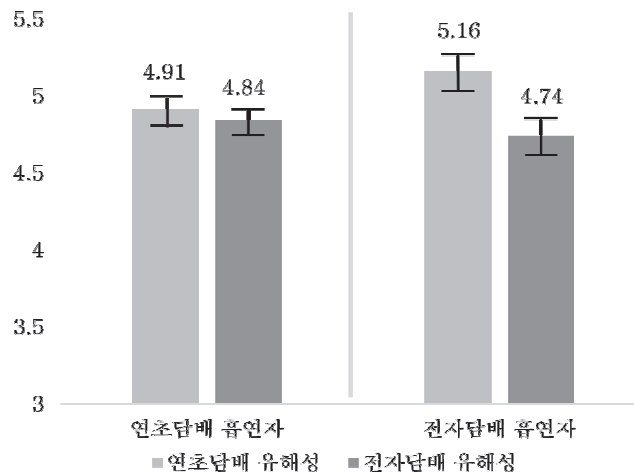
유해성 인식은 비흡연자를 제외한 연초담배 흡연자와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연초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연초담배 유해성과 전자담배 유해성,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연초담배 유해성과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체력, 폐, 심장, 뇌, 기침 및 가래 다섯 가지에 대한 소비자가 인식하는 유해성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연초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연초담배 유해성은 4.91($SD = .74$), 전자담배 유해성은 4.84($SD = .53$)으로 나타났고, 전자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연초담배 유해성은 5.16($SD = .86$), 전자담배 유해성은 4.74($SD = .74$)로 나타났다. 연초담배의 유해성은 연초담배 흡연자($M = 4.91$)보다 전자담배 흡연자($M = 5.16$)가 더 높게 인식했다($p < .001$).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담배 유형에 따른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p = .118$). 대응표본 t -test 분석결과, 연초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연초담배($M = 4.91$)와 전자담배($M = 4.86$) 유해성 수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318$). 하지만, 전자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두 담배 유형 간 유해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연초담배($M = 5.16$)보다 전자담배($M = 4.74$)의 유해성을 더 낮게 인식하였다(〈그림 1〉 참고).

유해성 인식을 세부항목별로 나눠서 비교분석을 한 결과,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전자담배보다 연초담배가 기침 및 가래($p < .001$), 심장($p < .05$), 뇌($p < .01$)에 더 유해할 것이라 인식했고, 체력과 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2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시선

595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 흡연자와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두 담배 유형 간 사회적 이미지 인식의 차이를 연초담배 흡연자,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 세 집단으로 나눠서 비교하였다. 대



〈그림 1〉 담배 유형별 유해성 인식

응표본 t -test 분석결과, 흡연자 이미지 일곱 가지 항목(사교적, 사려 깊은, 세련, 지적, 매력적, 쿨, 데이트하고 싶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은 비흡연자를 제외한 연초담배와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연초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 흡연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섯 항목(냄새, 건강, 부정적 인식, 관계형성, 눈치)의 평균값을 담배 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연초담배 흡연자의 사회적 시선 평균값이 5.28($SD = 1.08$)로 전자담배 흡연자의 평균값 4.66($SD = .90$)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1$).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주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네 항목에서 연초담배 흡연자가 느끼는 사회적 시선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s < .001$) (〈표 3〉 참고).

4.3 담배 규제정책 및 담배 정보 신뢰에 대한 인식

먼저 완전 금연정책에 관한 생각(완전 금연정책은

국가 국민 건강을 위해 추구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담배든 모든 국민이 흡연하지 않는 완전한 금연은 실현할 수 있다)과 점진적 금연정책(완전 금연보다 점진적 금연정책이 바람직하다; 완전 금연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완전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는 7점 척도 기준 평균 3.33($SD = 1.54$)로 나타났고, 점진적 금연에 대한 태도는 4.76($SD = 1.18$)로 나타났다. 두 정책에 대한 태도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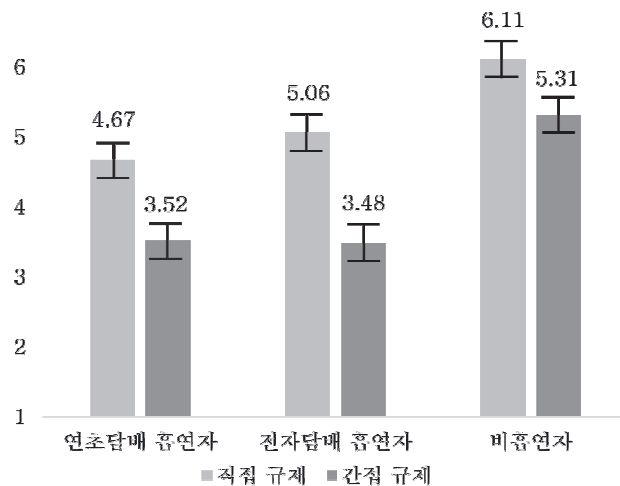
또한, 직접 규제정책(벌금과 같은 직접 규제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은 연초담배 흡연자($M = 4.67$, $SD = 1.48$)보다 전자담배 흡연자($M = 5.06$, $SD = 1.43$)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1$). 간접 규제정책(가격인상과 같은 간접 규제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에 대한 선호도는 두 집단(연초담배: $M = 3.52$, $SD = 1.72$; 전자담배: $M = 3.48$, $SD = 1.69$) 모두 4점 미만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801$) (〈그림 2〉 참고). 비흡연자도 직접

〈표 2〉 사회적 이미지 인식

			<i>M</i>	<i>SD</i>	Sig.
연초담배 흡연자 (<i>N</i> =220)	사교적	연초담배	4.04	1.18	<.05
		전자담배	3.79	1.09	
	사려깊은	연초담배	3.81	1.11	.890
		전자담배	3.80	1.05	
	세련	연초담배	4.16	.97	<.001
		전자담배	3.70	1.13	
	지적	연초담배	4.10	.90	<.01
		전자담배	3.84	1.05	
	매력	연초담배	3.94	1.24	.06
		전자담배	3.73	1.16	
	쿨	연초담배	4.27	1.00	<.01
		전자담배	3.97	1.19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i>N</i> =220)	데이트	연초담배	3.78	1.16	.284
		전자담배	3.90	1.25	
	사교적	연초담배	3.72	1.26	<.01
		전자담배	4.03	1.02	
	사려깊은	연초담배	3.42	1.01	<.01
		전자담배	4.05	.99	
	세련	연초담배	3.72	1.16	.433
		전자담배	3.81	1.01	
	지적	연초담배	3.62	1.23	<.001
		전자담배	4.04	1.03	
	매력	연초담배	3.58	1.38	.205
		전자담배	4.02	1.20	
비흡연자 (<i>N</i> =155)	쿨	연초담배	3.69	.92	<.001
		전자담배	4.22	.99	
	데이트	연초담배	3.25	1.41	<.001
		전자담배	4.03	1.26	
	사교적	연초담배	3.43	1.17	.609
		전자담배	3.38	1.09	
	사려깊은	연초담배	2.81	1.17	<.01
		전자담배	3.05	1.14	
	세련	연초담배	3.27	1.09	<.001
		전자담배	3.70	1.14	
	지적	연초담배	3.29	1.07	<.001
		전자담배	3.46	1.08	
	매력	연초담배	2.32	1.29	<.05
		전자담배	2.50	1.23	
	쿨	연초담배	3.37	1.08	.648
		전자담배	3.42	1.16	
	데이트	연초담배	2.06	1.25	<.05
		전자담배	2.29	1.24	

〈표 3〉 사회적 시선

		<i>M</i>	<i>SD</i>	Sig.
냄새	연초담배	5.10	1.47	<.001
	전자담배	4.24	1.26	
건강	연초담배	5.32	1.38	.800
	전자담배	5.35	1.25	
부정적 인식	연초담배	5.22	1.36	<.001
	전자담배	4.55	1.34	
관계 형성	연초담배	5.20	1.36	<.001
	전자담배	4.64	1.40	
눈치	연초담배	5.36	1.23	<.001
	전자담배	4.50	1.35	



〈그림 2〉 직, 간접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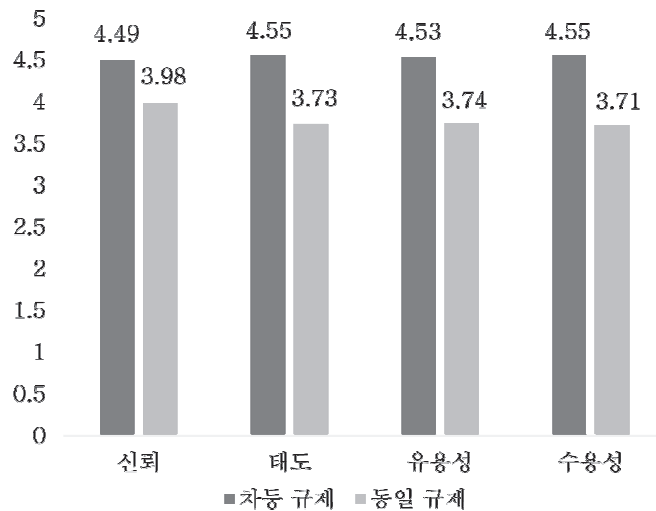
규제($M = 6.11$, $SD = 1.25$)를 간접 규제($M = 5.31$, $SD = 1.50$)보다 선호하였으나, 일반, 전자담배 흡연자보다 직접, 간접 규제 모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s < .001$).

소비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담배 소비정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595명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연초담배의 유해성

에 대한 정부 정보의 양은 평균 4.63, 연초담배 정보의 진실성은 4.60, 정부의 진정성은 4.57, 공익 광고 및 캠페인 설득력은 4.60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의 경우, 정보양 3.48, 진실성 3.50, 진정성 3.52, 설득력은 3.48로 연초담배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4〉 정부제공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

		<i>M</i>	<i>SD</i>	Sig.
정보양	연초담배	4.63	1.52	<.001
	전자담배	3.48	1.44	
진실성	연초담배	4.60	1.46	<.001
	전자담배	3.50	1.47	
진정성	연초담배	4.57	1.40	<.001
	전자담배	3.52	1.49	
설득력	연초담배	4.60	1.41	<.001
	전자담배	3.48	1.51	



〈그림 3〉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 별 소비자 인식

4.4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궤련형 전자담배 차등 혹은 동일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연초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먼저, 정책 유형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흡연 담배 유형과 관계없이 차등적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도(신뢰, 태도, 유용성, 수용성)가 높게 나타났다($ps < .001$) (〈그림 3〉 참고).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따른 대한 소비자 인식 정도를 흡연 담배 유형 별 비교 분석하였다. 차등 규제정책의 경우, 신뢰를 제외한 다른 종속변수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이 나타났다. 반면, 동일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연초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 간 정책 신뢰, 태도, 유용성, 수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고).

〈표 5〉 연초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 간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 유형 별 선호 비교

			<i>M</i>	<i>SD</i>	Sig.
연초담배 흡연자	신뢰	차등 규제	4.39	1.00	<.01
		동일 규제	3.97	1.28	
	태도	차등 규제	4.35	1.12	<.001
		동일 규제	3.71	1.41	
	유용성	차등 규제	4.39	.96	<.001
		동일 규제	3.71	1.05	
	수용성	차등 규제	4.37	1.22	<.01
		동일 규제	3.79	1.52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신뢰	차등 규제	4.59	1.08	<.001
		동일 규제	4.00	1.10	
	태도	차등 규제	4.74	1.07	<.001
		동일 규제	3.76	1.23	
	유용성	차등 규제	4.66	1.01	<.001
		동일 규제	3.61	.95	
	수용성	차등 규제	4.72	1.26	<.001
		동일 규제	3.63	1.43	

〈표 6〉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 비교

		<i>M</i>	<i>SD</i>	Sig.
신뢰	차등 규제	4.11	1.07	<.05
	동일 규제	4.58	1.21	
태도	차등 규제	4.07	1.11	<.001
	동일 규제	4.87	1.30	
유용성	차등 규제	4.32	1.23	<.001
	동일 규제	5.00	1.11	
수용성	차등 규제	4.32	1.34	<.001
	동일 규제	5.10	1.31	

추가로, 2(흡연 담배 유형: 연초담배 vs. 전자담배) × 2(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 차등 규제 vs. 동일 규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종속변수에서 두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규제정책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서 차등 규제

정책이 동일 규제정책보다 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비흡연자 집단에서 차등 규제와 동일 규제정책에 대한 신뢰, 태도, 유용성, 수용성을 비교분석 한 결과, 차등 규제보다 동일 규제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V. 결 론

본 연구는 연초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네 개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사전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해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고, 5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초담배 흡연자는 연초담배와 전자담배 간 유해성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쉐련형 전자담배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해저감 담배 제품으로 인정받고, 금연보조제품으로 연초담배 흡연자에게 권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연초담배 흡연자는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유해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정부 산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대국민 상대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연초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전자담배 유해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배 소비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초담배 흡연자와 달리 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연초담배보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연초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유해성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담배 흡연자는 연초담배가 전자담배보다 기침 및 가래, 심장, 뇌에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중 일부는 연초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변경한 후 기침, 가래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쉐련형이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지만, 황천덕 등(2016)의 인터뷰 연구에서도 연초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꾼 후 기침, 가래 및 신체 일부의 건강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한 일부 응답자가 있었다. 물론 일부 소비자의 인식일 수 있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직 논쟁거리가 남아 있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처럼 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부정적인 국가에서 전자담배 흡연자가 인식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초담배의 유해성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시사할만하다.

둘째, 흡연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프레임 한 공익 캠페인이 오랜 시간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담배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대부분 7점 척도 중 보통 수준인 3~4점 근처로 나타났다. 영화 속 배우의 흡연장면이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게 된 주요 계기 중 하나이고(Hanewinkel, 2009), Marlboro 등 담배 브랜드가 담배 소비와 긍정적 이미지를 연합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담배 소비는 니코틴 흡입 외에도 일종의 이미지 소비재로 여겨진다(Gray, Amos, & Currie, 1997). 많은 국가에서 미디어에서 흡연장면을 퇴출시키고, 담배 광고를 싣는 것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까지도 흡연과 연합된 긍정적 이미지가 흡연자의 인식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담배의 경우 연초담배 흡연자는 쉐련형 전자담배보다 연초담배 흡연자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연초담배 흡연자의 이미지가 더 사교적이고, 세련되고, 지적이고, 쿨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는 이와 반대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이미지가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더 사교적이고, 사려깊고, 지적이고, 쿨하고, 데이트하고 싶을 것 같

다고 응답하였다. 중립적 위치인 비흡연자의 경우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려깊은, 지적, 매력, 데이트하고 싶은 에서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이미지가 연초담배 흡연자의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연초담배 흡연자를 제외한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에 대해 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흡연 시 느끼는 사회적 시선은 연초담배 흡연자에 비해 궤련형 담배 흡연자가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의 건강을 제외한 냄새, 사회의 부정적 인식, 비흡연자와 관계 형성, 주변 사람의 눈치에서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연초담배 흡연자가 느끼는 압박감에 비해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냄새에서 오는 압박감의 수준이 관계 형성 및 눈치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추론할 수 있다. 추가 데이터 분석결과, 냄새에서 오는 압박감과 관계 형성 간 상관인 .315($p < .001$), 눈치와의 상관인 .433($p < .001$)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냄새가 적게 난다는 점은 궤련형 전자담배 장점으로 이것이 전자담배 선택에 주요 변수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궤련형 전자담배의 장점인 냄새가 궤련형 전자담배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흡연자, 연초담배 흡연자,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완전 금연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완전금연의 경우 정책의 현실 가능성이 작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점진적 금연정책에 대한 태도는 세 집단 모두 완전금연정책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조사되었다. 특히, 전자담배 흡연자가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점진적 금연정책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전 인터뷰 결과,

연초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 중 일부는 전자담배를 선택한 이유로 연초담배를 단번에 끊는 것은 힘들어서 전자담배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끊는 금연 방법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궤련형 전자담배가 점진적 금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금연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는 흡연자가 있으며,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 결과가 있다(정유석, 2014; Kotz, Böckmann, & Kastaun, 2018). 반면에,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자담배 자체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국 완전금연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만큼(Garey et al., 2019),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담배 규제정책은 가격인상, 금연구역 설정과 같은 간접 규제정책보다 벌금 같은 직접 규제정책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직접 규제의 단속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속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흡연자의 수가 적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어쩌다 걸릴지 모르는 직접 규제와 달리 간접 규제는 담배 소비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와닿기 때문에 흡연자에게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간접 규제정책 시행 시 흡연자의 자유권 침해와 서민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이민진 등, 2014), 간접 규제정책에 발의하기 전에 각 분야 전문가 및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돼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담배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초담배의 경우 정보의 양, 정보의 진실성, 정부 노력의 진정성, 정부 캠페인의 설득력 모두 7점 척도에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연초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 흡연자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평균 3점대로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정부에서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한 대대적인 공익 캠페인을 벌이고 있던 시점에 진행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담배 소비자가 공익 캠페인 속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까지는 찾지 못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가 담배 관련 정부 캠페인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탐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궤련형 전자담배에 차등 혹은 동일 규제 방식의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비교하였다. 연초담배,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동일한 규제정책보다 차등적 규제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차등적 규제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결과지만, 연초담배 흡연자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사할만하다. 동일한 규제 방식의 정책의 경우 연초담배 흡연자,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책 신뢰, 태도, 유용성, 수용성에서 연초담배 흡연자와 전자담배 흡연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역시 시사할만한 부분이다. 전자담배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라면 전자담배 흡연자가 연초담배 흡연자보다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될 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초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 흡연자만큼 동일 규제 방식의 정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초담배 흡연자 중 현재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불신하거나 전자담배 사용의 번거로움(e.g., 충전, 청소)을 느끼고 있지만, 향후 전자담배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연초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꿀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흡연자의 경우, 차등 규제정책을 동일 규제정책보다 선호할 것이다. 궤련형 전자담배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연초담배 흡연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는 전자담배에 동일 규제정책이 채택된다면 향후 연초담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자신과 상관이 없는 동일 규제정책에 반감을 표했을 수도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 규제정책을 설계할 때 그 목적이 연초담배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면, 연초담배에게 부과되는 세액 등은 높이고, 전자담배의 세액은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차선으로는 영국처럼 전자담배에만 세액 혜택을 주어 연초담배 흡연자에게 불이익은 주지 않으면서 전자담배로 유인할 수도 있다. 본 연구 조사결과, 연초담배 흡연자는 차등 규제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흡연자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흡연자는 차등 규제정책보다 동일 규제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담배제품 모두 비흡연자가 직접 소비하지 않고, 건강, 냄새, 환경미화 등 측면에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므로 동일 규제정책을 통해 두 담배 유형 모두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초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금연광고 및 캠페인에서 홍보하고 있으므로 비흡연자는 궤련형 전자담배를 위해 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비흡연자가 궤련형 전자담배를 위해 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식한다면, 연초담배보다 덜 위해한 제품인 궤련형 전자담배로 흡연자를 유인하는 차등 규제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에 우호적인 규제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지 못했다.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성별, 나이의 조절효과(흡연유형 × 성별, 전자담배 규제정책 × 성별 등)를 측정해봤으나, 성별과 나이의 조절효과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는데 전자담배가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Pineiro, 2016). 전자담배는 냄새가 적으므로 흡연 사실을 감추기 쉽다. 국내의 경우 여성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든 만큼, 여성 흡연자 중 편견을 의식해 흡연 사실을 감추기 쉬운 전자담배를 선택한 흡연자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사회적 시선은 여성($M = 4.82$, $SD = 1.09$)보다 남성($M = 5.10$, $SD = .96$)이 더 느낀다고 나왔다($p < .01$). 본 연구의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흡연 시 사회적 시선을 더 느끼지만, 성별은 본 연구에서 변수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피험자를 모으는 데 있어서 성별과 사회적 시선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설문 문항이지만, 서열척도를 사용한 설문 문항의 한계 상 남성 흡연자와 여성 흡연자가 지각하는 경중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나이 역시 성별만큼 담배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1). 특히 나이는 금연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Pesce et al., 2019). 건강에 관심이 커지는 40대 이상부터 금연 행동 빈도가 높아지며, 결혼, 출산 적령기에도 흡연률이 낮아진다(Murin, Raffi, & Bilello, 2011). 본 연구에서는 나이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오히려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험자 모집에 있어서 20~50대 흡연자의 수를 균일하게 맞추려고 하였다. 50대 이상까지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의 경우,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담배 소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이 다른 나이대 집단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기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20~30대가 선호한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30대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았다. 남성, 여성 모두 50대 이상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정종훈, 2019). 흡연자의 나이에 대한 고려와 해석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을 결론짓지 못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담배 소비자 인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안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관련된 연구문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23. 03. 23〉

〈1차수정본접수일: 2023. 05. 05〉

〈게재확정일: 2023. 05. 23〉

참고문헌

- 김보라 (2022). 생활경제. “잘나가는 쉼련형 전자담배”... KT&G, 2년 연속 매출 5조 달성.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420>
- 김보영, 윤동현, 김봉석 (2015). 불법담배유통량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질서경제저널*, 18(2), 1-18.
- 김원년, 서정하, 김양중 (2006). 담배가격인상이 흡연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95-213.
- 박하연, 강정석 (2015). 건강 위험 지각과 흡연자의 부정적

- 이미지가 흡연 관련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8(4), 99-108.
- 세계보건기구 (2022). 세계보건기구 제4차 세계담배동향 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분석결과.
- 신한금융투자 (2022). 혁신성장 전자담배: Upside를 만드는 Inside.
- 이민진, 임성원, 이성규, 조홍준 (2014). 담배규제정책 쟁점별 국내 연구 현황 분석. *보건사회연구*, 34(3), 165-191.
- 이철민 (2020).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국제적 규제정책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3(2), 112-118.
- 정유석 (2014). 전자담배, 과도한 규제만이 최선일까?. *대한금연학회지*, 5(1), 26-29.
- 정중훈 (2019). 중앙일보. 성인11%는 전자담배 경험... '30대 남, 20대 여'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24379>
- 조경숙 (2013). 담배 가격 인상시 흡연 청소년의 흡연 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13(1), 33-41.
- 조홍준 (2020). 궤련,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유해성 비교.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63(2), 96-104.
- 질병관리청 (2022). 국민건강영양조사.
- 최유진 (2017). 담배규제정책 보도에 나타난 기사 유형, 주제, 논조 분석: 2011~2016년 금연 구역, 담배 가격, 경고 그림, 금연 지원 정책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1(2), 64-92.
- 황천덕, 박준우, 김대진, 전승우, 권지은, 권경희 (2016). 전자담배 담론 연구. *소비문화연구*, 19(3), 1-29.
- Auer, R., Concha-Lozano, N., Jacot-Sadowski, I., Cornuz, J., & Berthet, A. (2017). Heat-not-burn tobacco cigarettes: smoke by any other name. *JAMA Internal Medicine*, 177(7), 1050-1052.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1). Quitting smoking among adults—United States, 2001-2010.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0(44), 1513-1519.
- Cho, H. J., Dutra, L. M., & Glantz, S. A. (2018). Differences in adolescent e-cigarette and cigarette prevalence in two policy environment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20(8), 949-953.
- Cooper, T. V., DeBon, M. W., Stockton, M., Klesges, R. C., Steenbergh, T. A., Sherrill-Mittleman, D., ... & Johnson, K. C. (2004). Correlates of adherence with transdermal nicotine. *Addictive Behaviors*, 29(8), 1565-1578.
- Evans, W., Price, S., Blahut, S., Hersey, J., Niederdeppe, J., & Ray, S. (2004). Social imagery, tobacco independence, and the TruthSM campaig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9(5), 425-441.
- FDA (2012). FDA Authorizes Marketing of IQOS Tobacco Heating System with 'Reduced Exposure' Information.
- Fiore, M. C., Jorenby, D. E., Baker, T. B., & Kenford, S. L. (1992). Tobacco dependence and the nicotine patch: clinical guidelines for effective use. *Jama*, 268(19), 2687-2694.
- Franceschi, S., Gao, Y. T., ... & Doll, R. (2004). Tobacco and cancer: recent epidemiological evidence 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5(4), 306-312.
- Gale, N., McEwan, M., Hardie, G., Proctor, C. J., & Murphy, J. (2022). Changes in biomarkers of exposure and biomarkers of potential harm after 360 days in smokers who either continue to smoke, switch to a tobacco heating product or quit smoking. *Internal and Emergency Medicine*, 17(7), 2017-2030.
- Garey, L., Mayorga, N. A., Peraza, N., Smit, T.,

- Nizio, P., Otto, M. W., & Zvolensky, M. J. (2019).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e-cigarette users who attempt and fail to quit: dependence, perceptions, and affective vulnerabi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80(1), 134-140.
- Gray, D., Amos, A., & Currie, C. (1997). Decoding the image—consumption, young people, magazines and smoking. An exploration of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2(4), 505-517.
- Gilmore, A. B., Tavakoly, B., Taylor, G., & Reed, H. (2013). Understanding tobacco industry pricing strategy and whether it undermines tobacco tax policy: the example of the UK cigarette market. *Addiction*, 108(7), 1317-1326.
- Guindon, G. E., & Boisclair, D. (2003). Past, current and future trends in tobacco use.
- Hajek, P., West, R., Foulds, J., Nilsson, F., Burrows, S., & Meadow, A. (1999). Randomized comparative trial of nicotine polacrilex, a transdermal patch, nasal spray, and an inhaler.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59(17), 2033-2038.
- Han, M. A. (2019). The price of tobacco and its effects on smoking behaviors in Korea: The 2015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Preventive Medicine*, 120, 71-77.
- Hanewinkel, R. (2009). Cigarette smoking and perception of a movie character in a film trailer.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3(1), 15-18.
-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on Scientific Standards for Studies on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2012). Scientific standards for studies on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s. National Academies Press.
- Klein, D. E., Chaiton, M., Kundu, A., & Schwartz, R. (2020). A literature review on international e-cigarette regulatory policies. *Current Addiction Reports*, 7(4), 509-519.
- Kotz, D., Böckmann, M., & Kastaun, S. (2018). The use of tobacco, e-cigarettes, and methods to quit smoking in Germany: A representative study using 6 waves of data over 12 months (the DEBRA study). *Deutsches Ärzteblatt International*, 115(14), 235.
- Levy, D. T., Chaloupka, F., & Gitchell, J. (2004). The effect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on smoking rates: a tobacco control scorecard. *Journal of Public Health Management and Practice*, 10(4), 338-353.
- Miller, N., Frieden, T. R., Liu, S. Y., Matte, T. D., Mostashari, F., Deitcher, D. R., ... & Bassett, M. T. (2005). Effectiveness of a large-scale distribution programme of free nicotine patches: a prospective evaluation. *The Lancet*, 365(9474), 1849-1854.
- Murin, S., Rafii, R., & Bilello, K. (2011).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in pregnancy. Clinics in Chest Medicine*, 32(1), 75-91.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00). Principles of drug addiction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g, M., Freeman, M. K., Fleming, T. D., Robinson, M., Dwyer-Lindgren, L., Thomson, B., ... & Gakidou, E. (2014). Smoking prevalence and cigarette consumption in 187 countries, 1980-2012. *Jama*, 311(2), 183-192.
- Odani, S., & Tabuchi, T. (2022). Prevalence of heated tobacco product use in Japan: the 2020 JASTIS study. *Tobacco Control*, 31(e1), e64-e65.
- Peeters, S., Costa, H., Stuckler, D., McKee, M., &

- Gilmore, A. B. (2016). The revision of the 2014 European tobacco products directive: an analysis of the tobacco industry's attempts to 'break the health silo'. *Tobacco Control*, 25(1), 108-117.
- Pesce, G., Marcon, A., Calciano, L., Perret, J. L., Abramson, M. J., Bono, R., ... & Ageing Lungs in European Cohorts (ALEC) study (2019). Time and age trends in smoking cessation in Europe. *PloS One*, 14(2), e0211976.
- Philip Morris International (2018). Our Tobacco heating System. Tobacco Meets Technology 2018. https://www.pmi.com/smoke-free-products?utm_expId=.Lc8-liT_
- Piñeiro, B., Correa, J. B., Simmons, V. N., Harrell, P. T., Menzie, N. S., Unrod, M., ... & Brandon, T. H. (2016). Gender differences in use and expectancies of e-cigarettes: Online survey results. *Addictive Behaviors*, 52, 91-97.
- Ranson, M. K., Jha, P., Chaloupka, F. J., & Nguyen, S. N. (2002).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th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price increases and other tobacco control policies. *Nicotine & Tobacco Research*, 4(3), 311-319.
- Reid, J. L., Hammond, D., Rynard, V. L., & Burkhalter, R. (2014). Tobacco use in Canada.
- Reuters (2022). BAT sales jump on vaping, oral nicotine: announces 2 billion-pound buyback. <https://www.reuters.com/business/bat-quarterly-sales-jump-announces-2-bln-stg-buyback-2022-02-11/>
- Rowell, T. R., & Tarran, R. (2015). Will chronic e-cigarette use cause lung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Lung Cellular and Molecular Physiology*, 309(12), L1398-L1409.
- Sanford, N. N., Sher, D. J., Xu, X., Aizer, A. A., & Mahal, B. A. (2019). Trends in smoking and e-cigarette use among US patients with cancer, 2014-2017. *JAMA Oncology*, 5(3), 426-428.
- Simonavicius, E., McNeill, A., Shahab, L., & Brose, L. S. (2019). Heat-not-burn tobacco produc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bacco Control*, 28(5), 582-594.
- Stead, L. F., Perera, R., Bullen, C., Mant, D., Hartmann-Boyce, J., Cahill, K., & Lancaster, T. (2012).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1).
- Vineis, P., Alavanja, M., Buffler, P., Fontham, E., Franceschi, S., Gao, Y. T., ... & Doll, R. (2004). Tobacco and cancer: recent epidemiological evidence.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96(2), 99-106.
- Wakefield, M., & Chaloupka, F. (2000).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rogrammes in reducing teenage smoking in the USA. *Tobacco Control*, 9(2), 177-186.
- Weinstein, N. D. (1998). Accuracy of smokers' risk perception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0(2), 135-140.
- Winn, D. M. (2001). Tobacco use and oral diseas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65(4), 306-312.
- World Bank (1999). Curbing the epidemic: governments and the economics of tobacco control. *Tobacco Control*, 8(2), 196-201.
- Yingst, J. M., Veldheer, S., Hrabovsky, S., Sciamanna, C., & Foulds, J. (2015). Reasons for non-adherence to nicotine patch therapy during the first month of a quit attempt.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69(8), 883-888.

Yoo, T. W., Shin, H. C., Choi, H. S., Lee, J. K.,
Kim, Y. S., Cho, H. J., & Huh, B. Y. (1993).
A multicenter trial on the effectiveness of

transdermal nicotine patch in smoking
cess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14(4), 206-214.

Consumer Perceptions of Conventional Tobacco and Heated Tobacco

Jungyong Ahn · Jungwon Kim · Yongjun Sung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onsumer perceptions of conventional tobacco and heated tobacco. As a result of a surve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ived harmfulness of conventional cigarettes between conventional tobacco smokers and heated tobacco smokers. Regarding heated tobacco, however, heated tobacco smokers perceived less harm than conventional tobacco smokers. For social image of smokers, the social image of heated tobacco smokers was relatively more positive than that of conventional tobacco smokers. This study also found that conventional tobacco smokers reported feeling more social pressure from others. Both conventional tobacco smokers and heated tobacco preferred gradual smoking cessation policies to complete smoking cessation policies. Also this study found that like heated tobacco smokers, conventional tobacco smokers also preferred policies that were favorable to heated tobacco rather than unfavorable policies for heated tobacco.

Keywords: tobacco consumption, heated tobacco, quit-smoking policy, heated tobacco regulation

Jungyong Ahn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First Author
Jungwon Kim / Doctoral Student, 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Co-Author
Yongjun Sung /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Psychology, Corresponding Author

